

Antonio Lopez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인체재현에 관한 연구

이 경 아* · 금 기 숙**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Human Body in Antonio Lopez's Fashion Illustration

Kyung-Ah Lee* · Key-Sook Geum**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Textile & Clothing Design,

College of Art and Design,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10. 4. 12, 심사(수정)일: 2010. 10. 5, 게재확정일: 2010. 10. 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the way of human body expression for prospecting of future fashion illustration through research of the methods and meaning expressed in the works of 30 years by Antonio Lopez.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looking into the perception of the body between 1960s and 1980s, when Lopez worked actively, on the basis of the discourse, art and fashion for the femininity and studying the representation method and meaning of the body in his works. Lopez suggested an index of the ideal beauty of the times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ature body like a child in the 60s, the glamorous body in the 70s and the exaggerated muscular body in the 80s by predicting the changes of the perception of femininity and ideal beauty.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Lopez employed the art form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 body in his works and presented the polysemous implications of the art form in the context of the body expression. In addition, he redefined sexuality by focusing on the code that confronted the conventional women's morals by changing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the women's pose, and depicted the other's image such as the colored races, departing from the ideal human body based on the white women. Lastly, he deconstructed the human body in various ways, thereby enlarging the concept of the human body in the existing fashion illustration.

Key words: Antonio Lopez(안토니오 로페즈), fashion illustration(패션 일러스트레이션), human body(인체), representation(재현)

I. 서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일러스트레이터의 패션과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통해 패션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써 잘 알려져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일차적인 목적은 구상한 패션디자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지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패션디자인뿐만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는 실제의 디자인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세계로 이미지화한다. 이는 주로 다양하게 재현된 인체¹⁾ 위에 의복을 착용시켜 표현하게 되는데, 순수예술의 표현방법을 차용하여 작가의 상상력과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인체를 변형하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체이미지를 제시한다.

한편 최근 패션에서 미디어를 통한 인체의 재현²⁾이 패션 담론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패션사진, 광고, 잡지 등의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지는 패션 이미지는 일차적으로는 인체의 이미지에 의해 구현되므로, 결국 패션 이미지는 인체의 재현에 의해 그 성향이 영향을 받으며 패션의 생산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패션을 전달하는 미디어로써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와 패션이 주된 표현매체로, 인체재현에 의해 패션의 형태가 제시되기 때문에 인체의 재현 방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인체재현은 작가의 상상력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은 패션경향은 물론 작가가 처한 시대정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결국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체는 재현과정에서 인체 그 이상의 은유적인 의미들도 함축하거나 재현하게 된다.

안토니오 로페즈(Antonio Lopez)는 1963년 패션잡지인 보그지의 작업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작품인 1986년에 그린 목화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인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전통을 탈피하여 시대별로 새로운 인체 재현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이상적인 여성인체에 대한 시대정신이 로페즈의 작품에 표현된 인체의 특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는 당시의

예술형식을 차용하여 다양한 인체재현방식을 제시하였다.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가 차용한 당시의 예술에 표현된 인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를 당시의 여성 인체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과 이상미, 예술에서의 인체재현방식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체재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패션사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1960년대부터는 패션잡지에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현저히 줄어들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침체기였다. 그러나 안토니오 로페즈는 이 20여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그 동안 로페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인체재현의 방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토니오 로페즈의 작품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방법으로 먼저 안토니오 로페즈가 활동하던 시기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인체에 대한 인식을 여성성의 담론과 예술, 패션의 관점에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로페즈 작품에서의 인체재현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고찰한 작품은 로페즈의 작품집, 패션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관련된 서적 등에서 260여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안토니오 로페즈의 생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안토니오 로페즈는 그의 작품에서 하이패션계의 화려한 스타일보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의 다른 패션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1987년 에이즈로 죽었을 때 뉴욕 타임즈는 'Antonio Lopez is dead at 44; was major fashion illustrator'³⁾라고 그의 부고에 관련된 기사를

실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작가였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는 뉴욕의 FIT에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출판사인 WWD에서 일하면서 그의 인상적인 여성드로잉이 주목되어 패션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60년대 패션계의 스타로 부각되었다.⁴⁾ 1960년대 초반 로페즈는 팝아트와 사이키델릭의 강렬한 칼라와 긴밀한 화면구도, 대담한 스타일로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보그, 하퍼스 바자, 엘르 등과 같은 패션 잡지에 프리랜서로 그림을 신기 시작했다. 특히 뉴욕 타임스에서 일하면서 그 곳의 패션에디터들의 노련한 안목과 함께 그는 팝아트, 옵아트,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 스타일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었다. 로페즈는 당시의 반항적인 의복과 자유로운 의식으로 전통적인 패션드로잉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패션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경향을 테마로 매년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했다.⁵⁾

1969년에는 파리로 이주해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와 함께 패션명사와 모델을 위한 살롱을 경영하면서 프랑스에 미국의 팝문화를 소개했다. 1970년 초에 로페즈는 그의 작품에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었고 대담하고 화려한 스타일로 파리, 도쿄, 교토, 밀라노, 시드니, 멜버른 등 여러 국제도시에서 활동하였다.⁶⁾ 그리고 80년대 미소니의 이미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등 사업가로서도 성공한 디자이너와 광범위하게 작업 활동을 하였다. 로페즈는 죽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1986년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 등의 작품을 붓과 대나무를 가지고 묵으로 그린 목화가 그의 마지막 작업이었다. 이처럼 그의 활동은 1950년대 말 사진의 리얼리즘이 패션드로잉을 대신하여 침체되어온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이 시기 동안 정기적으로 보그지의 페이지에 실린 것은 안토니오 로페즈의 드로잉만이 유일하였다.⁷⁾

그는 예술의 궁극적인 표현으로써 이전의 지적 속물주의로 타락한 추상표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예술에서 가치가 있는 근원으로 물질적 환경, 공업적 생산, 산업화 안에서 실제적이면서 혼해빠지고 직접

적인 사실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익숙하고 사적인 삶을 그 당시의 감수성과 완벽하게 일치시킨 로페즈는 연필, 목탄, 잉크, 과슈, 사진 그리고 콜라주 등 매우 다양한 드로잉 테크닉의 대가였다. 로페즈는 이전의 다른 많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와는 달리, 패션 드로잉은 표현을 위한 개인적인 수단으로써 선택하였고 패션은 그의 창의성과 예술적인 시도를 위한 것이었다.⁸⁾

로페즈의 드로잉은 형식면에서나 주제 면에서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18, 19세기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직접적인 영향 받은 1930년대에서 1950대까지의 패션드로잉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무도회, 오페라, 경마장에서의 우아한 여성인 진부한 스타일은 로페즈의 작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⁹⁾ 또한 그는 클래식과 초현실주의, 모던과 사이키델릭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예술과 문화적 암시를 차용하였다.¹⁰⁾ 그의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과 함께 동시대 사회 문화에 대한 예리한 통찰은 작품에서 획일화된 하나의 스타일을 거부한 다양한 시도로 표출되었으며 이로써 20세기 후반의 보편적이고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여성성에 대한 담론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중심의 상징질서와 문화적 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성문제와 정체성, 몸에 대한 관점들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여성성의 범주를 재구성해왔다.

전통적인 성정체성의 개념은 생물학적·자연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구분하는 것이었다. 전통적 여성성은 사회에서 남성적 원리가 무엇보다도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종속성·수동성·모성성·성적 순결성 등으로 정의되었다.¹¹⁾ 이 바탕에는 데카르트의 정신중심의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18세기 자연주의적 몸 개념은 남녀의 성차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여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종속불가피성을 합리화시켰다.¹²⁾ 이러한 빅토리아시대의 이상을 기조로 한 전통

적인 여성성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을 직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와 함께 전통적인 여성 이데올로기 즉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¹³⁾

그러나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여성적 시각으로 밝힘으로써 여성과 그 몸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여성노동인구의 증가, 중산층 여성들의 자각, 시민운동권의 성장으로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전개되어 온 전통적인 정치이념들과 문화적 신화들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성에 대한 관습과 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질성을 강조하여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남녀 동질론을 이끌어 내었다.¹⁴⁾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조건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사실이 불평등과 억압을 지속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남녀의 차이를 축소하고 최소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성적평등을 위해 여성을 남성적 규범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여성적 특성은 외면되었으며 여성성은 남성적인 것으로 지향되어야 할 범주가 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페미니즘은 남녀의 '차이를 축소'하는 입장에서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여성성에 관한 논점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적 제도 안에서 규정된 부정적 여성성 대신에 여성 특유의 경험이나 특질에 주목하고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주체적인 성으로써 여성을 남성과 분리, 구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¹⁵⁾ 이러한 페미니즘의 관점에 의해 여성의 몸과 정신이 여성의 열등함을 암시한다는 기존의 의미에서 여성의 자존심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 여성의 성적 특성과 관련된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상징체계에 의해 정의된 여성성을 종식하고 여성의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여성적인 것의 특성을 재정의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성(理性) 중심의 담론과 재현을 의심하는 포스트모던 사고와 가부장제의 모

순을 극복하려는 페미니즘의 신념이 일치하면서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 남성적인 제도와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성적인 것의 결정요인들을 밝혀내기 보다는 그것을 '탈 고정'시키고자 하였다.¹⁶⁾ 즉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성은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본질적 속성에 의한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형성물이며, 과정 속에서 변화한다고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중심적, 해체적 관점에서 페미니즘은 고정된 젠더의 개념을 해체하여 남녀의 성적 차이의 이분법적 구분을 배제하고 양성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성적체성을 제시하였다.¹⁷⁾ 이러한 양성성의 개념은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지배되었던 성의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여성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적체성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3. 예술에 표현된 인체

20세기 이후 서구 미술사에서 이상적인 인물의 시각적 재현만을 중시하는 외적 재현 대상으로서의 인체가 아닌 현대적 의미의 인체가 등장하였다. 즉 인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구조로서가 아니라 인체로 표현되는 대상의 성격을 내면화시켜 시대적 감각을 표출시키며 개념화되었다.¹⁸⁾ 20세기 초 모더니스트들은 노동의 과학적 분석, 작업과 몸동작의 합리화, 기계화의 진보에 의한 기술문명의 몸을 예찬하면서 기계적이고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미래의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간형은 팝아트에서도 발견되는데 대중 잡지의 핀 업 걸들(pin-up-girls), 스포츠의 우상들, 또는 슈퍼맨과 같은 만화의 강철 주인공들이 예술작품 속에 등장하였다.¹⁹⁾

팝아트는 1960년대를 전후한 10여 년간 성행한 미국적 미술현상으로 통속적인 이미지와 일상생활의 이미지에서 표현의 제재를 취함으로써 흔히 발견되는 일상의 이미지나 물체를 미술의 영역으로 발전시켰다.²⁰⁾ 즉 대중문화의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적인 특성에 대한 비판으로,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인 일상적이고 소비적인 것, 도시적이고 기계주의적이며 외설적인 것들을 팝아트의 형식으로 가져갔다.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은 만화의 통속적인

표현양식을 변형시키는 작업으로 대중적 형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그림 1)²¹⁾ 또한 존스(Allen Johns)는 대중잡지의 이미지처럼 강렬하고 저속하며 인공적인 여인의 이미지로 현대적인 물신이미지를 창조했다(그림 2)²²⁾. 이와 같이 팝아트에서 재현된 인체는 기계적이고 규격화된 형태로 제시됐으며, 이는 전통미술의 귀족적인 여성이미지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이었다.

60년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에로티시즘과 70년대 이후 회화적 표현에 인체를 직접 사용하는 바디아트나 퍼포먼스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본격적으로 인체가 미술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해체되고 이성중심주의의 가치관이 퇴조되면서, 사회 문화적인 인체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고자, 인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²³⁾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등장하는 인체는 조각나고 해체된 신체, 총체적이고 유기성을 잃고 불구된 기형적 신체, 외부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원형부재의 인체 등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으로 제시되었다.²⁴⁾ (그림 3)²⁵⁾은 고급예술의 초상화에 기형적 신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사회적 정상화의 시각적 권위를 전복시키고 미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제시하였다.

특히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신비롭고 기괴한 미학을 기반으로 하는 초현실주의는 80년대 포스

트모더니즘 예술의 재현방식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초현실주의 작가인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는 많은 포스트모던 작가들의 참조 대상이 되었다.²⁶⁾ 초현실주의 회화에서는 욕망과 성, 무의식과 충동의 문제를 조각난 몸, 이질적인 요소들과 융합된 몸, 다른 형태로 변용된 몸, 확대되고 왜곡된 몸을 통해 충격적인 이미지로 제시하였는데,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표상하는 몸은 우리 몸의 관습적인 형태와 미학의 오래된 질서를 문제 삼았다(그림 4)²⁷⁾. 즉 몸 주변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밖과 안,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을 융합하고, 재구성되어 새로운 현실성을 부여받으며 혼종적인 몸 이미지들의 유형들로 재탄생되었다.²⁸⁾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등장하는 인체는 기존의 형태와 미의 범주를 벗어난 파편화되고 혼용된 형태로 재현되면서 새로운 인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패션에 재현된 인체

이상적인 여성의 인체형태는 각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창조되었다. 특히 패션은 당시의 미적 관념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체형을 만들었으며, 인체의 이상에 대한 변화는 다시 패션의 변화를 가져왔다. 앤 홀랜더(Anne Hollander)에 따르면 패션은 미의식을 결정하는 실제적이고 생물학적인 인체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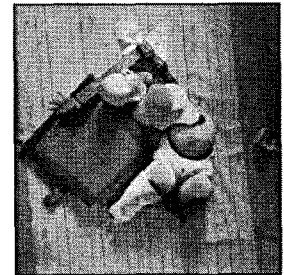
<그림 1>
Roy Lichtenstein,
침몰되는 소녀 (1963)
모던디자인 비평,
1994, p. 154



<그림 2>
Allen Johns,
완벽한 조화
Pop Art,
2006, p. 49



<그림 3>
Joel-Peter Witkin,
푸른 모자를 쓴 여자 (1982)
몸과 미술,
1999, p. 91



<그림 4>
Hans Bellmer,
인형 (1935)
The Shock of the New,
1991, p. 255

제2의 허구적인 인체를 창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체상은 항상 변화하며 패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정의된다.²⁹⁾

1960년대의 이상적인 인체형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1950년대와는 달리, 젊고 가냘프고 중성적인 어린아이 같은 인체였다. 이러한 미성숙한 마른 인체에 대한 이상은 사고와 행동의 자유로움과 젊음에 대한 사회적 열광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세기 동안 여성과 패션에 영감을 준 모델인 사회적 엘리트 집단의 소멸과 함께 패션에서도 엘리트적인 특성은 사라지고 젊은이와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대중 문화적 성향이 반영되었다.³⁰⁾ 또한 젊고 마른 육체에 대한 이상이 패션에서 여성적인 곡선을 무시한 직선의 슈프트 드레스와 다리를 많이 드러내는 미니스커트와 쇼츠로 형상화되었다.³¹⁾ 이와 같은 패션은 성인 여성을 날씬하고 미성숙한 어린 아이처럼 보이도록 하였으며, 성적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성숙함과 관능적인 여성성을 거부하는 반모성성의 상징이 되었다.

1970년대는 영 패션에서 어덜트 패션으로의 인체미의 이상이 교체되는 시기였다. 세련되고 세시한 매력과 상상한 약동미가 넘치는 매혹적인 여성상에 대한 요구는 패션에서 1970년대 말 글래머러스 룩의 출현을 예고했다. 60년대에 비해 여성적인 미가 부각되면서 곡선미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복고풍의 로맨틱 모드가 부활되면서 잘룩한 웨이스트라인과 거기서 이어지는 힙 라인의 둥근 곡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³²⁾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여성미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70년대의 여권운동, 여성의 교육과 직장진출의 증가로 오히려 전통적인 여성의 수동성은 소멸되었고, 직장에서 능력 있고 능동적인 여성들이 인정받게 되었다. 1971년에 랄프 로렌(Ralph Lauren)이 테일러스 슈트를 매니쉬한 여성복으로 제시하였으며 70년대 말부터는 패드로 부풀린 넓은 어깨의 테일러스 슈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³³⁾ 이와 같이 70년대 이상적인 인체미에 대한 요구는 세시하고 매혹적이지만 세련되고 능동적인 여성상이었다.

1980년대는 물질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야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패션은 출세 지향적 성격을 나타내었으며, 이상적인 여성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강한 여성이었다.³⁴⁾ 70년대 말 미국에서 등장한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은 어깨를 넓히고 성적 특성을 제거하는 옷차림으로 여성의 능동성 및 권위적인 이미지 등 자아표현을 위한 기표로 작용하였다. 파워드레싱은 대처(Thatcher) 여사와 다른 전문직 여성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권력의 인체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성적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남성의 시선을 객관적으로 만들고 여성 스스로 몸과 자아표현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한다.³⁵⁾

이러한 강한 여성에 대한 열망은 육체에 대한 승배로 이어져 건강하고 파워풀한 여성이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80년대 주요 관심사가 된 '자기연출'의 한 형태로 육체에 대한 승배는 바디빌딩과 에어로빅에 대한 열광으로 나타났다. 여성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에서도 젊음과 건강을 강조하고, 운동을 통한 건강하고 능동적인 여성을 이상형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건강한 육체에 대한 관심은 패션에서 스포츠 패션이 일상복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축성이 강하고 편안한 소재와 레깅스에 운동화, 레그 워머 등을 착용하게 되었고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애슬레틱 룩(athletic look)이 일반화되었다.³⁶⁾ 이러한 인체를 드러내는 바디콘셔스(body conscious) 복식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여성성의 반영이었으며 몸과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자율적인 여성상에 대한 의지의 표방이었다.

Ⅲ. 안토니오 로페즈 작품의 인체 재현

이 장에서는 각 시대의 미적 이상형과 여성성의 담론과 관련하여 안토니오 로페즈가 표현한 인체의 형태 및 비례, 얼굴표현, 헤어, 포즈와 표현기법 등의 분석을 통해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재현된 인체의 형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년대 미성숙한 인체

1960년대의 팝아트는 로페즈의 패션드로잉에서 중

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그가 표현한 60년대의 여성들은 만화적 기법이나 그래픽적인 표현으로 그려진 경쾌하고 자유로운 이미지의 소녀들이었다. 로페즈는 시대적 이상미가 변화할 것을 예측하고 여성들의 인체를 관능적이고 진부한 이미지가 아닌, 젊음과 건강, 생기가 넘쳐나는 소녀와 같은 이미지로 재현하였다. 로페즈는 패션이 유행할 스타일을 제시하기에 앞서 스타일이 변할 것을 예상하고 작업하였다. 그가 창조한 헤어, 상징적인 액세서리, 섬세한 제스처는 의복을 묘사한 것이기 보다 삶으로부터 나온 감정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회적 아이콘으로 작용했다.³⁷⁾

60년대의 젊고 미성숙한 인체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 그는 인체를 가늘고 마른 직선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즉, 가늘고 긴 목, 납작한 가슴,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 좁은 어깨, 작고 굴곡이 없는 엉덩이 등 여성적인 곡선미가 드러나지 않게 인체를 표현하였다(그림 5)³⁸⁾. 이와 같은 인체묘사는 거리의 젊은이들의 어리고 미성숙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한편 어려 보이는 앞머리와 뒤로 길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 뿐 아니라 빨강, 핑크, 주황 등 원색의 헤어색상도 젊음을 상징하는 60년대 로페즈 그림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얼굴표현 또한 젊음과 소녀다움을 특징짓고 있는데, 커다란 눈망울에 둥글고 통통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살짝 쳐진 눈 꼬리와 강조되지 않은 눈썹, 분홍빛으로 발그레한 두 뺨과 주

근개의 표현 등은 소녀다움을 강조하였다(그림 6)³⁹⁾.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인체를 제시하기 위해 인체의 비례를 7-8등신으로 표현하여 과장하지 않았다. 이렇듯 미성숙한 이미지는 과장되지 않는 인체의 비례로도 강조되었다.

또한 60년대 작품은 의복과 인체의 입체감을 무시한 평면적인 표현과 간결한 그래픽적인 외곽선으로 인체를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표현은 60년대의 이상적 여성미인 볼륨감이 없고 평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인체를 더욱 부각시켰다.

60년대 이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묘사된 여성들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어린아이 같은 포즈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포즈는 팔을 올리거나 다리를 벌려 뛰거나 걷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특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의 표현은 움직임을 더욱 활동적이고 경쾌해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큰 포즈와 팝아트적인 원색이나 형광색의 강렬한 컬러의 사용은 가볍고 경쾌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젊음'의 은유로서 그림에 에너지와 긴장감을 부여했다(그림 7).

60년대 로페즈에 의해 재현된 소녀들의 포즈는 도시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모습으로 다이내믹함을 담아냈으며, 여성적 특성이 제거된 미성숙한 인체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인체묘사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이



<그림 5>
Antonio Lopez,
Mademoiselle (1965)
Art fashion,
2003, p. 104



<그림 6>
Antonio Lopez,
Harper's Bazaar (1995)
Antonio 60, 70, 80,
1995, p. 55



<그림 7>
Antonio Lopez,
Fashion of the Times (1967)
Antonio 60, 70, 80,
1995, p. 66

미지와 규범을 벗어나 여성과 그 몸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사회적 움직임의 영향으로, 이전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재현되었던 여성들의 평범하고 움직임이 없는 고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였다.

2. 1970년대 관능적 인체

'관능적 인체'라 함은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특성을 지닌 인체로, 성적인 부위의 강조가 아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에로틱한 감흥을 이끌어 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⁴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재현된 관능적인 인체는 인체의 성적부위의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이나 시선, 인체가 취하고 있는 포즈, 여성인체의 섬세한 표현 등으로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1970년대 초 로페즈는 새로운 여성상이 탄생했음을 느끼고 이러한 흐름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해 그려진 인체의 형태들은 다음에 유행할 모드에 대한 예측을 진전시키고 예견하게 하였다. 70년대 초는 60년대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 단순하게 그래픽 적으로 화면을 처리한 작품들도 다소 보이지만, 60년대의 단순한 선이 표현주의적인 역동적이고 섬세한 묘사로 바뀌게 되면서 여성인체를 매우 부드럽게 묘사했다.

인체표현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표현적인 선은 드라마틱한 주관적 표현, 거침없이 그려진 역동적인 선의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인

체를 표현한 선의 구도는 단순하면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유연한 곡선의 흐름이 강조되었다. 또한 파랑과 핑크, 녹색과 빨강의 강렬한 색채의 대비는 화면의 역동감과 긴장감을 더했다. 이러한 선표현의 변화와 화면의 강렬한 색채대비는 섹시한 매력과 악동미가 넘치는 매혹적인 여성상을 구체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 당시 로페즈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관능적이고 성숙한 여성이었다. 이는 절제된 관능미를 발휘하는 큰 키에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은 가슴, 곡선미가 드러나지만 조그마한 엉덩이, 그리고 다소 과장된 어깨로 표현되었다(그림 8)⁴¹⁾. 또한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의 길이를 강조하는데, 전 시대에 비해 인체비례가 8등신 이상으로 다소 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얼굴의 모습은 둥글고 커다란 눈의 소녀다운 얼굴에서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로 변화하여, 70년대 작품에서 여성들의 얼굴은 부드럽고 유연한 얼굴 형에 자연스러운 눈매와 붉은 입술로 섹슈얼리티를 나타내었다. 시선은 눈동자만 옆으로 돌려 관능적으로 응시하거나 눈은 지그시 감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굵은 웨이브로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은 로맨틱하면서 관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그림 9).

이러한 관능적인 이미지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도 표현되었다. 특히 70년대 중반에 들어서



〈그림 8〉
Antonio Lopez,
French Vogue (1972)
Antonio 60, 70, 80,
1995, p. 105



〈그림 9〉
Antonio Lopez,
Italian Vogue (1973)
Antonio 60, 70, 80,
1995, p. 85



〈그림 10〉
Antonio Lopez,
Saks Fifty Avenue (1976)
Antonio 60, 70, 80,
1995, p. 102

면서 광대뼈를 강조한 입체감이 있는 얼굴표현으로 강하고 성숙한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눈은 눈 꼬리가 올라간 모습으로 살짝 감거나 치켜뜨고 있고 눈썹은 사선의 형태로 뾰족하게 올라가거나 원래의 위치보다 위쪽에서 가늘고 등근 형태로 그려내었다. 또한 입술도 음영을 강조하여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인상을 표현하였다(그림 10).

포즈는 비스듬히 눕거나 기대고 살짝 비틀며 손은 얼굴 쪽으로 가져가는 등 관능미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재현 방식을 취하지만, 이는 주체적인 성으로서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즈는 점차 능동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좀 더 당당하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3. 1980년대 과장된 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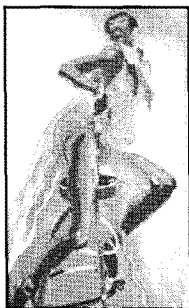
1980년대 로페즈 드로잉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특징은 인체의 새로운 해석과 그에 따른 표현양식의 변화이다. 로페즈가 선택한 테크닉은 신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사이를 교차하는 것으로 오브제를 도입하거나 해부학적 해체적 표현과 인체의 과장으로 특징지어 진다.⁴²⁾

한편 8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의 지위상승, 근육질의 건강미가 최고의 미로 부상하면서 변화된 인체의 이상형을 예측한 로페즈는 드로잉에서 차츰 여성의 인체형태를 과거의 섬세하고 고운 표현에서 강한 선

으로 변화시켰다. 강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 건강과 운동미의 전형인 갈색 피부에 짧은 머리와 근육질 체형의 과장된 표현으로 새로운 이상형을 제시하였다. 근육질의 팔과 다리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의 음영 대비를 통해 입체감을 강조하였으며, 갈색의 피부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건강하고 잘 관리된 몸매라는 인상을 주었다(그림 11)⁴³⁾.

또한 여성의 높아진 지위와 권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창백하고 밋밋한 피부의 평면적인 모습으로 절제된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이는 각진 얼굴과 직선적이고 끝이 올라간 눈썹 등으로 강조되었는데, 70년대는 광대뼈를 강조하여 표현하여 에로틱한 성숙함을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었다(그림 12). 80년대 그의 그림에서는 긴 머리카락을 날리는 모습은 드물고 짧거나 붙여 올린 헤어스타일을 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로 인한 남성과 대등한 여성의 활동성을 묘사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어깨를 매우 강조한 남성적인 실루엣의 유행과 키가 큰 여성을 선호하는 추세는 인체비례의 극단적인 과장으로 나타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과장적 인체 표현은 비례에 있어서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체비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⁴⁴⁾ 인체의 과장은 30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활용되었다가 쇠퇴한 후



<그림 11>
Antonio Lopez,
Vanity no. 2, Italy
Versace (198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
Antonio Lopez,
Marie Claire, France (1982)
Antonio 60, 70, 80,
1995, p. 125



<그림 13>
Antonio Lopez,
Bloomingdale's (1981)
Antonio 60, 70, 80,
1995, p. 140

70년대 말부터 다시 부상한 인체변형 양식이며, 로페즈의 그림에서도 80년대부터는 10등신 이상의 인체 비례로 여성인체가 재현되었다.

80년대 그의 작품에서 여성들은 더욱 당당해졌는데, 이러한 당당함은 눈높이에서 그려지기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수동성, 종속성 등 전통적인 여성성을 거부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지닌 여성상을 그려내었다(그림 13).

사회전반으로 제기된 여성성에 대해 재정의 하려는 움직임은 로페즈 작품의 여성의 표현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점점 여성 이미지의 미화 또는 이상화를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제도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여성이미지를 배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IV. 로페즈 작품의 인체재현의 의미

이 장에서는 안토니오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형태적 특성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의 내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로페즈 작품의 인체 재현의 의미를 재현방식의 다양성, 섹슈얼리티의 재해석, 타자 이미지 재현, 인체미 개념의 확대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재현방식의 다양성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패션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은 당시의 예술형식과 더불어 변화되어왔다. 특히 로페즈는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영향을 받으며 상업예술과 동시에 순수예술을 추구하였다. 그는 이전의 다른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과는 달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단순히 패션을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동시대적 이슈와 예술에 대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혼용한 스타일의 거장이었다. 앞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하나의 재현 방식을 구사하기보다 다양한 미술양식의 모티프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입하여 그 의미를 재생산하였다.

1965년 이후 로페즈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이미

지를 미술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팝아트의 영향으로 통속적인 이미지와 일상생활의 이미지를 작품 속에 끌어들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에서처럼 만화라는 통속적 표현양식을 사용하거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중적 이미지로 인체를 재현하였다(그림 14)⁴⁵⁾. 그림의 배경에는 대중문화의 중심인 도시나 일상적인 이미지를 콜라주로 표현하였다. 그 배경 속에 미니스타일을 착용한 인체는 밝고 폭발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어 정제된 하이패션에서 지속되어왔던 우아함에 대한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한편 로페즈가 레제(F. Leger)에게서 영감을 받은 드로잉에서 외곽선은 대담한 굵은 선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여성들의 헤어는 금속과 같은 질감으로 묘사되었고 팔다리는 양감이 있는 덩어리로 그려졌다. 레제의 그림에서처럼 여성의 인체는 주관적인 환상은 제거되고 단순하고 기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그림은 아래에서 올려다본 왜곡된 시점에서 강조되어 당시의 유행하는 미니스커트 패션을 대담한 방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하였다⁴⁶⁾(그림 15)⁴⁷⁾.

이후로도 로페즈는 확고하게 시대적 흐름과 당시의 예술형식에 몰두했고, 그의 과거 대가들에 대한 관심은 그의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로페즈는 팝아트와 리얼리즘을 넘나들면서 그들 회화의 함의들을 그의 드로잉에서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독일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등 다른 북유럽의 리얼리즘 화가들은 로페즈의 작업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리얼리즘의 섬세한 작업은 의복의 우아한 묘사 뿐 아니라 인물의 정체성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었다.⁴⁸⁾ 특히 1970년대 초반의 팝아트의 직계로서 나타난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은 상점의 진열장이나 도심의 쇼핑센터, 모터사이클, 항공기 엔진 등을 무심한 시각으로 포착한 장면을 에어브러시를 이용해 세부까지 완벽하게 묘사하였는데⁴⁹⁾, 로페즈의 70년대 그림에서 포토리얼리즘의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빌딩과 네온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안에 갇힌 캐리어우먼 스타일의 여성들은 무채색의 섬세한 연필드로잉을 이용하여 무감각하고 냉정한 태도로 묘사되고 있다(그림 16)⁵⁰⁾.

1980년대 예술가들이 초현실주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로페즈는 이미 초현실주의적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1966년 타임지에 초현실주의 드로잉을 선보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태리 보그에 실린 초현실주의 드로잉 등 10년 이상 로페즈 작업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 드로잉은 인체의 변형과 이미지의 혼합으로 표현되었다.⁵¹⁾ 1983년 초현실주의 연작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마니, 페레, 미소니, 골티에, 발렌티노 등의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있는 인물들은 무의식 속의 전혀 엉뚱한 이미지들과 결합하고 배치되고 있다. 특히 <그림 17>에서 인물과 겹쳐진 커다란 눈이나 인체모양의 귀걸이 등 현실과 꿈을 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로페즈가 표현한 초현실적으로 변용된 인체는 기존의 관습적인 인체재현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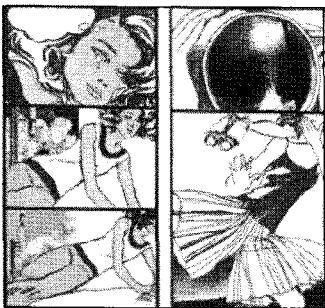
이처럼 로페즈는 패션 뿐 아니라 스타일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체의 재현을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구사하였다. 그에게 있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지 의상의 재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의 창조와 추구와 관련이 있다. 드로잉 속의 인체가 입고 있는 재킷이나 슈트는 단지 하나의 창조를 위한 모티프였으며, 더 나아가 그가 미술형식을 도입해 다양한 재현방식을 구사한 것은 변화하는 이상미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인체 재현의 맥락 속에서 예술형식이 지니고 있는 다의적 암

시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2. 섹슈얼리티의 재해석

섹슈얼리티⁵²⁾는 사회 속에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영역으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정치화시켰는데, 이는 섹슈얼리티가 변화 가능한 사회적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역사적으로 늘 통제되어왔으며, 가부장적 성규범 속에 억압되어왔다. 1960년대 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섹슈얼리티를 억압해온 가부장제구조와 남성지배의 억압적 상황을 변화시켰다. 로페즈는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인식하고 여성성의 재현방식을 변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재현매체에서 여성성의 표현은 인체의 형태와 이미지 뿐 만 아니라 포즈의 재현 방식에 의해 달라진다. 전통적인 여성성의 이미지는 수동성, 종속성, 성적 순결성, 관능성의 의미를 내포한다.⁵³⁾ 또한 여성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품행의 기준은 여성의 열등한 지위의 결과로 신체와 얼굴 표정에서도 남성보다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 이는 의상은 깔끔하고 잘 구성되어야 하며, 사지는 가지런한 자세로 놓아져 다리를 벌리기 보다는 모아야 하며 팔은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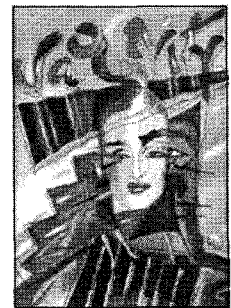
<그림 14>
Antonio Lopez,
Fashion of the Times (1965)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2007, p. 236



<그림 15>
Antonio Lopez,
Fashion of the Times,
(1963)
<http://latino.si.edu>



<그림 16>
Antonio Lopez,
Eija Vehka ajo, Odéon
studio, Paris (1975)
Antonio's people,
2004, p. 113



<그림 17>
Antonio Lopez,
Vanity no.9, Italy (1983)
Antonio 60, 70, 80,
1995, p. 179

통 옆에 붙여야 하며 누드나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⁵⁴⁾ 그리고“종속의 의례화”(ritualization of subordination)하는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의 코드들은 의식적으로 과장된 모습으로 옷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또는 등을 대고 누워 있는 피사체를 보여주거나 팔다리를 위쪽이나 측면으로 찌르는 어색한 포즈를 취해 여성피사체의 품위를 미묘하게 떨어뜨리는 자세 등이었다.⁵⁵⁾

그러나 로페즈의 60년대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이미지와 품행기준을 벗어난 여성인체와 포즈들이 재현되었다. 인체의 형태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모성적·관능적 이미지를 탈피한 가슴과 힙의 볼륨이 제거된 중성적인 인체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동일화 현상으로 여성성을 배제한 남성화 경향이었다. 당시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여성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대안적 여성성으로 남성다운 덕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남녀의 차이를 축소하고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동향은 로페즈의 직선적이고 밋밋한 미성숙한 인체, 즉 성적 특성을 제거한 반모성적 형태로 제시되었다.

또한 포즈는 이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되었던 사지를 가지런한 자세로 모은 정적이고 평범한 고전적인 방식에서는 벗어나 다리를 벌리고 뛰어다니는 모습 등 생동감 있는 움직임은 강조했다. 이러한 경쾌하고 과감한 포즈들은 변화하고 있는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읽을 수 있다(그림 18). 즉 여성성을 규정짓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전형적인 품행기준이나 이미지 코드를 벗어나고 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로페즈 작품에서 여성들의 포즈는 다시 전통적인 여성성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전통적인 여성이미지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림 19>에서와 같이 70년대 초 로페즈가 그려낸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의 바라보는 시선에 순종하고 복종적인 자세로, 이전의 전형적인 여성의 종속적 이미지와 관능적이고 수동적으로 재현되는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그의 여성적인 특성을 부각시킨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의 재현은 당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신체와 자존심을 강조하려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와 동시에 1970년부터 로페즈 그림에서 여성들은 도전적이고 당당하게 재현되었다(그림 20). 점차 가슴이나 허벅지를 노출시키고, 눈높이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여성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품행기준과 의례적인 종속의 이미지 코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성적 정의에서 벗어난 여성인체의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80년대까지 이어진다. 70년대 말부터 강한 여성에 대한 열망과 육체에 대한 숭배로 건강하고 강한 여성이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로페즈의 그림의 여성들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이전의 관능적인 여성이미지가 아닌 탄탄한 근육을 가진 과장된 인체였다(그림 21). 이러한 인체 재현은 남성에게 의해 정의된 전통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즉, 육체적 아름다움과 섹슈얼리티를 여성 자신이 조절하는 자율적인 여성상을 근육질의 건강한 인체로 묘사하였다. 또한 <그림 22>에서처럼 다리를 벌리고 앉은 포즈는 전통적인 여성다움의 품행기준에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의 이미지 코드로 수동성과 복종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우월함을 전달하는 이미지 코드로 읽어낼 수 있다.

한편 80년대 고정된 젠더의 개념을 해체하여 성의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려는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로페즈 그림에서 여성에게 특정 정체성을 제시하지 않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중성적 이미지로 제시되었다(그림 23). 80년대 로페즈는 여성의 얼굴을 각이 진 얼굴형과 뚜렷한 콧대 등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 형태로 묘사하였다. 또한 남성의 얼굴도 턱선을 부드럽게 묘사하거나 빨간 립스틱을 바른 모습으로 표현하여 남녀의 고정된 성적 구분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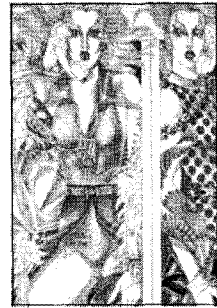
이와 같이 로페즈는 여성성에 대해 재해석하려는 페미니즘의 움직임과 함께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본



〈그림 18〉
Antonio Lopez,
Haper's, Bazaar (1965)
Antonio 60, 70, 80,
1995, p. 179



〈그림 19〉
Antonio Lopez,
Italian Vogue (1973)
Antonio's people,
2004, p. 113



〈그림 20〉
Antonio Lopez,
Maison de Bonneterie
Campaign (1972)
Antonio 60, 70, 80,
1995, p. 179



〈그림 21〉
Antonio Lopez,
Swimsuit Erica Massei,
Vanity Fair (1982)
Art fashion, 2003, p. 116



〈그림 22〉
Antonio Lopez,
Bloomingdale's (1981)
Antonio 60, 70, 80,
1995, p. 142



〈그림 23〉
Antonio Lopez,
Missoni Campaign (1985)
Antonio 60, 70, 80,
1995, p. 194

전형적인 여성성의 재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인체의 이미지와 포즈의 재현방식의 변화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반종속적이며 성적 자유의 이미지 등 여성성과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3. 타자 이미지 재현

19세기 말부터 예술과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미적영감을 발견하여 파블로 피카소, 폴 고갱, 헨리 마티스와 같은 예술가들이 유색인종을 재현하였지만, 로페즈 이전의 패션일

러스트레이션에서 유색인종의 인체를 구체화해서 재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로페즈는 하이패션의 백인여성 중심의 이상적인 인체에서 벗어나 '타자'로써 유색인종의 여성인체를 그의 그림 속에 재현하였다.

로페즈의 작품은 안나 피아기(Anna Piaggi)와 같은 패션 에디터, 앤디 워홀과 파블로 피카소, 칼 라거펠트 등 패션과 문화계의 거목들과의 교류로 하이패션의 정제된 공간으로부터의 나온 것이라고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영향력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면서 뉴욕과 파리 등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한 그의 다문화적 배경과 별난 감수성, 그리고 스트

리트 문화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 하이패션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소외되어왔던 '타자'들이 등장한 배경은 이와 같은 그의 다문화적 감성 뿐 아니라 당시 대두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억압된 것의 복귀'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면서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주변적인 것으로 무시되어 왔던 '타자'로서 서구 백인 이외의 인체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로페즈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구 백인 이외의 '타자'의 이미지는 도시 동성연애자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라틴 아메리카 여성 등으로, 지배문화나 전통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대상

들이었다⁵⁶⁾(그림 24). 이러한 로페즈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감성은 하나의 스타일을 거부한 모든 인종을 혼합한 얼굴로 표현되었고, 이는 미의 클리셰(cliche)을 벗어나 새로운 미의 이상을 창조하였다.

1967년 Fashion of the Times에 발표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인디언 소녀를 모델로 하고 있다(그림 25). 그리고 1968년 Soen(Japan)에서 가늘게 치켜 올라간 눈과 작은 입술 등 일본 여성의 얼굴을 재현하여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유색인종을 등장시키고 있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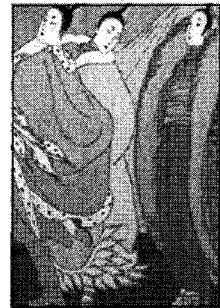
특히 로페즈는 1971년 Italy Vogue에서 흑인의 인체를 재현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검은 것은 아름답



<그림 24>
Antonio Lopez,
Portrait :Mike Morino (1979)
Antonio's people,
2004, p. 55



<그림 25>
Antonio Lopez,
Fashion of the Times (1967)
Antonio 60, 70, 80,
1995, p. 41



<그림 26>
Antonio Lopez,
Soen Japan (1968)
Antonio 60, 70, 80,
1995, p. 58



<그림 27>
Antonio Lopez,
Italian Vogue (1971)
Antonio's people,
2004, p. 106



<그림 28>
Paul Colin (1925)
<http://www.framerite.com.au>



<그림 29>
Antonio Lopez,
Marie Claire France (1983)
Antonio 60, 70, 80,
1995, p. 126

답다'는 슬로건의 흑인해방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그림 27). 로페즈의 흑인모델은 193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가수이자 댄서인 조세핀 베이커(Josephine Baker)를 암시했다. 특히 이들 모델의 인체 포즈들은 잘 알려진 이 댄서의 포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다.⁵⁷⁾ 이는 로페즈가 베이커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 뿐 아니라, 흑인문화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상징하는 베이커를 상징화하고 있었다. 흑인의 평등권을 주장했던 그녀의 사상과 예술을 암시하는 로페즈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종차별의 폐지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그의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다.

조세핀 베이커를 통한 로페즈의 '타자'에 대한 관심은 80년대의 작품에까지 이어지는데, 1983년 Marie Claire(France)에 실린 그림은 1925년 베이커 공연을 위해 폴 콜린(Paul Colin)의 홍보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다(그림 28)⁵⁸⁾. 이 그림은 파위 수트를 입은 백인 여성들을 폴 콜린이 그린 흑인가수 얼굴 위로 중첩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비록 화면구성의 전경에 배치되고 있지만 백인의 존재는 희미하게 배경 속에 묻혀있다. 베이커를 그려진 위치에 백인 여성을 대치함으로써,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백인 중심의 재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그림 29).

이와 같이 로페즈의 그림에서 동성애자나 흑인 등 유색인종인 '타자'의 인체재현은 단순히 패션의 미적 영감을 위한 모티프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로

페즈의 이미지들은 유쾌하게 때로는 빈정거리며 타자에 대한 역사적 폭력을 인지하면서 비평적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4. 인체미 개념의 확대

로페즈의 그림에서 60, 70년대는 고전적인 인체미를 답습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80년대 이후 그의 독창적인 인체 해석 방법이 주목되었다. 안토니오 로페즈의 80년대 그림에서 인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되어 기존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되었던 인체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당시의 초현실주의 회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인체표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체를 조각난 형태로 묘사하거나 그로테스크하고 추한 이미지로 묘사함으로써 기존의 인체 형태와 고전적인 미의 범주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였다.

로페즈는 하나의 타입이나 범주 안에서 미의 이상을 국한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수많은 새로운 형태 안에서 미를 발견하는 것으로써 미의 범주를 확대시켰다.⁵⁹⁾ 특히 기존의 미의 범주를 과감히 벗어나 괴기함, 추함, 우스꽝스러움 등을 우아함과 세련됨만이 용인되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1983년 Vanity에서 모스키노와 발렌티노 등의 의



〈그림 30〉
Antonio Lopez,
Vanity no.8, Italy
(1983)
Antonio's people,
2004, p.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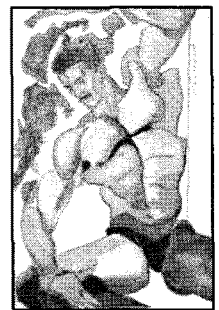
〈그림 31〉
Antonio Lopez,
Vanity no.9, Italy,
(1983)
Antonio 60, 70, 80,
1995, p. 178



〈그림 32〉
Antonio Lopez,
Vanity no.1, Italy,
(1981)
Antonio 60, 70, 80,
1995, p. 123



〈그림 33〉
Antonio Lopez,
Vanity no.9, Italy,
(1983)
Antonio 60, 70, 80,
1995, p. 179



〈그림 34〉
Antonio Lopez,
Vanity no.1, Italy,
(1981)
Antonio's people,
2004, p. 99

<표 1>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과 안토니오 로페즈의 인체재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성성의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성관습과 성의 사회적 역할 재조명 남녀의 동질성 강조/남성적인 것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적인 성으로써 여성성 강조 남녀 차이의 중요성 부각/여성인체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된 젠더의 개념 해체 여성성의 결정요인 탈고정/양성성의 개념 등장
↓		
로페즈의 여성성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 탈피 성적 특성을 제거한 미성숙한 반모성적 인체 전통적인 품행기준 탈피-다리를 벌린 과감한 포즈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섹슈얼리티의 강조 관능적이고 성숙한 인체 수동적·종속적 포즈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성 재현 여성의 특성을 제거한 중성적인 이미지의 인체 여성적 특성의 남성인체 재현 고정된 성적 구분 배제
↓		
예술에 표현된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팝아트 통속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 도입 저속하고 인공적 인체 기계적이고 규격화된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트모더니즘 경계의 해체, 억압된 것으로의 복귀 해체된 인체·불구된 기형적 인체·원형부재의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현실주의 신비롭고 기괴한 미학 이질적인 요소와 융합된 인체 조각난 인체·변용된 인체·확대되고 왜곡된 인체
↓		
로페즈의 예술형식을 차용한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팝아트 만화 등 통속적인 표현 대중적 이미지의 인체재현 단순하고 기계적인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현실주의 그로테스크 인체(60년대 말~80년대) 조각나고 과장된 인체 이질적인 요소와 결합한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트모더니즘 조각나고 해체된 인체 회화적 인체 동성애자, 유색인종 등 타자의 재현
↓		
패션에 재현된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적 인체 -마르고 미성숙한 인체 직선적인 실루엣의 짧은 원피스와 미니스커트 등 극단적인 젊음과 여성적 곡선을 거부한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적 인체-관능적이고 성숙한 인체 잘룩한 웨이스트와 험의 곡선을 강조한 글래머러스 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적 인체-건강하고 파워풀한 이미지의 인체 능동적·권위적인 이미지의 파워드레싱 젊음과 건강을 강조한 스포츠 패션
↓		
로페즈의 미적 이상형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보이는 얼굴과 헤어스타일 7-8 등신의 과장되지 않은 인체비례 평면적이고 볼륨이 없는 미성숙한 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숙하고 섹시한 얼굴과 굽은 웨이브의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 8등신 이상의 다소 과장된 인체비례 절제된 관능미와 곡선이 드러나는 인체 70년대 말-도발적·도전적 이미지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제된 강인함을 표현한 얼굴과 짧은 헤어스타일 10등신 이상의 과장된 인체 건강함을 강조한 근육질의 인체

상을 표현한 그림은 마치 캐리커처와 같은 회화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인물의 표정과 인체표현은 과장되고 유머러스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간략하고 굵은 외곽선은 만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그림 30).

또한 다음 호에 실린 로페즈의 그림은 충격적이고 의외의 장면들로 묘사되는데, 인체 표현도 기존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미적인 표현과 거리가 멀다. 의류용 망치를 들고 는 여성은 군데군데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여성들 표정은 그로테스크하고 회색의 모노톤으로 채색한 피부색은 피가함을 더하고 있다.(그림 31).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표현은 정상의 상태를 벗어나 과장과 극단으로 나타난다. 그로테스크 인체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제 2의 인체를 창조하는 생성의 행위 속에 있는 '이중 인체'라는 점이다. 이는 절단된 부위, 부분적 기관이 다른 기관, 다른 대상, 다른 세상과 결합하여 하나의 우주적 인체를 형성하면서 인체가 가진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⁶⁰⁾ 정상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새로운 인체이미지를 창조하고자 했던 로페즈의 자유로운 감성은 인체를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한 극단적인 표현으로도 나타났다. <그림 32>에서처럼 인체를 동물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강렬하고 피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인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인체표현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한편 로페즈의 80년대 그림에서 인체는 종종 조각나고 파편화된 형태로 재현되었다. <그림 33>의 배경 속에 재현된 조각나고 과장된 인체는 꿈과 현실을 융합하여 재구성된 초현실적인 인체로서 관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그림 34>에서는 인체의 형태를 파편화시킴으로써 인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인체를 새롭게 재정의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80년대 이후의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는 회화적이거나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어 기존의 미적 범주를 벗어났으며, 이질적인 요소와 혼용되거나 파편화된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체재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로페즈 작품에서의 인체는 이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서 볼 수 있는 단순히 지각적인 인체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체 내부의 잠재된 이미지와 작가의 상상력이 인체를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인체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 개념은 기존의 미 개념의 파괴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넘은 다양한 인체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의지를 내포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안토니오 로페즈가 활동하던 시기인 60년에서 80년대까지의 몸에 대한 인식을 사회, 예술, 패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형태적 특성과 그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인체재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안토니오 로페즈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체재현방식은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형태적 특성은 패션에 재현된 이상미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여성성의 담론과 관련되었다.

60년대의 젊음과 극도로 마른 인체에 대한 이상과 전통적인 여성성에서 탈피하고 남녀의 차이를 축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로페즈의 그림에서 여성인체는 성적 특성을 제거한 미성숙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70년대는 세련되고 섹시한 매력과 매혹적인 여성상에 대한 요구와 여성과 남성의 성적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그는 폭선미를 드러내는 관능적인 여성인체를 재현하였다. 한편 건강하고 능동적인 여성상에 대한 기대는 80년대 그의 그림에서 짧은 머리와 근육질 체형의 과장된 표현으로 새로운 이상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로페즈는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인체에 대한 시대정신을 그의 그림에 담아냄으로써 그가 제시한 인체스타일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형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토니오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인체의 재현방식에 다양한 예술형식의 차용

하여 예술형식이 지니고 있는 다의적 암시를 그의 드로잉을 통해 표현하였다.

둘째, 사회전반으로 제기된 여성성에 대해 재정의 하려는 움직임은 로페즈의 작품에서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와 품행기준을 벗어난 인체의 형태와 포즈를 통해 새로운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재해석하여 재현하였다.

셋째, 로페즈의 전통을 거부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자유로운 감성은 하이패션의 백인 여성 중심의 이상적인 인체가 아닌 보편적인 미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타자'로서의 도시 동성애자나 유색인종을 재현하여 타자에 대한 비평적 담론을 담아내었다.

넷째, 로페즈의 그림에서 기존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인체형태들이 재현되었다. 특히 80년대 초현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인체재현방식을 차용하여 회화된 인체, 그로테스크한 인체, 파편화된 인체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로페즈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에 확대된 인체미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같이 로페즈가 재현한 인체의 새로운 개념들은 다른 패션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인체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로페즈는 패션 드로잉의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연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그의 자유로운 감성과 실험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시대를 앞서는 보편적인 미의 이상을 창조하였다. 로페즈가 매체에서 그림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가 그린 의복과 여성의 제스처 속에 담겨진 함의들은 다음에 유행할 모드를 예측하게 하였다.

특히 로페즈가 창조한 여성의 이미지와 해부학에 기초한 섬세한 인체들은 단순히 의복을 묘사하기 위한 것을 넘어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은유이며, 그러한 이미지들은 사회적 상징으로 작용했

다. 따라서 팝아트를 비롯한 예술의 영향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그의 작품을 읽는다면 작품 안에 담고 있는 시대적 아이콘에 의한 상징적 의미들이 간과되기 쉬울 것이다. 특히 로페즈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는 사회·문화적 상징의 재현 장소로서, 그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체재현의 방식과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은 시대적 감각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1) '인체'는 사람의 몸을 의미 한다 이는 해부학적 의미의 몸 개념으로 사용되며 몸의 전체적인 형태적 구성이나 구조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는 로페즈의 작품에서 얼굴, 포즈, 구조, 비례, 변형 등 몸의 형태적 특성과 구조를 통해 내재된 의미를 유추하고자 하므로, '인체'를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몸'은 사람이나 동물의 물리적 신체 또는 그것의 활동기능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문화적 몸 담론이 부각되면서 미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육체'는 정신과 구분되는 '구체적인 물체로서 사람의 몸'을 말한다. '신체'도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맥락이나 건강과 관련된 의미에서 사용된다. 한편 문맥에 따라 몸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함을 밝혀 둔다.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9.
- 2) 재현이란 이미 경험된 사건, 사물, 생각, 행위 등에 대한 재구성을 말한다. 미적 대상으로 인체는 단순한 인체의 외형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고 있고 체계적인 정신세계를 밖으로 표출한다. 김소영 (2001). *패션커뮤니케이션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5.
- 3) Antonio Lopez is Dead at 44: Was Major Fashion Illustrator (1987, 3, 18). *The New York Times*, 자료 검색일 2010. 3. 5,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1987/03/18/obituaries/antonio-lopez-is-dead-at-44-was-major-fashion-illustrator.html>
- 4) Antonio Lopez & Juan Ramos, 자료검색일 2009. 10. 10, 자료출처 <http://latino.si.edu/virtualgallery/antonio/bios.htm>
- 5) Nicholas Drake (1987). *Fashion illustration today*. London: Thames and hudson, pp. 7-8.
- 6) Antonio Lopez & Juan Ramos, *op. cit.*
- 7) Cally Beacknan (2007).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p. 169.
- 8) Juan Ramos (1995). *Antonio 60,70,80*. London: Thames and Hudson, p. 9.
- 9) *Ibid.*, p. 10.

- 10) 자료검색일 2009. 10. 10, 자료출처 http://latino.si.edu/virtualgallery/antonio/artsection_2frames.html
- 11) Ann Brooks (1997). *Postfeminism: Feminism, culture Theory and culture forms*. 김명혜 역 (2003). *포스트 페미니즘과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p. 263.
- 12)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2.
- 13) 위의 책, p. 74.
- 14) 김태연 (2001). *저널리스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페미니즘표현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15) T. Gouma Peterson, P. Mathews. *The feminist critique of art history*. 이수경 역(1994).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서울: 시각과 언어, p. 92.
- 16) 위의 책, p. 97.
- 17)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0.
- 18) 김지혜 (2001).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19) 한림미술관, 이대기호학 연구소 (1999).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p. 7.
- 20) 박정연 (1997). *팝아트회화의 특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21) 김민수 (1994).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라픽스, p. 154.
- 22) Klaus Honef (2006). *Pop Art*. 지향은 역 (2006). *팝아트*. 서울: 마로니에 북스, p. 49.
- 23) 천정민 (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인체표현의 비평적 감상방법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0-21.
- 24) 박운수 (2007). *후기 현대미술의 신체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25) 한림미술관·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 연구소 (1999). *앞의 책*, p. 91.
- 26) 강태희 (1997). *현대미술의 문맥읽기*. 서울: 미진사, p. 100.
- 27) Robert Hughes (1991). *The Shock of the New*. 최기득 역 (1995). *새로움의 충격*. 서울: 미진사, p. 255.
- 28) 조윤경 (2008). *초현실주의와 몸의 상상력*.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24-26.
- 29) Gertrud Lehnert (1998). *Schnellkurs mode*. 박수진 역 (2005). *패션: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패션의 세계*. 서울: 예경, pp. 15-16.
- 30) Juan Ramos. *op. cit.*, p. 8.
- 31) Gertrud Lehnert. *op. cit.*, pp. 154-155.
- 32)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98.
- 33) 김은희. *앞의 책*, p. 84.
- 34) 박수진 역. *앞의 책*, p. 166.
- 35) 김은희. *앞의 책*, p. 53.
- 36) 박수진 역. *앞의 책*, pp. 166-167.
- 37) Juan Ramos. *op. cit.*, p. 29.
- 38) Volker Zahm (2003). *Art fashion*. German: Volker Zahm, p. 104.
- 39) Juan Ramos. *op. cit.*, p. 55.
- 40) 박태용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9.
- 41) Juan Ramos. *op. cit.*, p. 105.
- 42) *Ibid.*, p. 212.
- 43) Galileo's Universe (2007. 9. 1). 검색일자 2009. 12. 20. 자료출처 <http://www.showstudio.com/forums/art/23080>
- 44) 임법재 (1980). *인체비례론*. 서울: 홍익대학교출판부, p. 29.
- 45) Cally Beacknan (2007).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p. 236.
- 46) Juan Ramos. *op. cit.*, pp. 113-114.
- 47) Amelia Malagamba-Ansótegui and Ramón Rivera-Servera. *Critical Desires: Race and Sexuality in the Work of Antonio*. 검색일자 2009. 10. 10. 자료출처 <http://latino.si.edu/virtualgallery/antonio/bodyessay.htm>
- 48) Juan Ramos. *op. cit.*, p. 30.
- 49) 최기득 역. *앞의 책*, p. 344.
- 50) Paul Caranicas (2004). *Antonio's people*. London: Thames & Hudson, p. 113.
- 51) Juan Ramos. *op. cit.*, p. 30.
- 52)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성욕이나 성애의 개념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특성, 행동경향, 심리적 생리적 충동, 성적매력 등을 가리키며, 인간이 가지는 성에 대한 감정·사상·관심·행동·가치관·신념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잠재능력을 지칭한다. 윤가현 (1990). *성 심리학*. 서울: 정원사, p. 16.
- 53) 김은희. *앞의 책*, p. 74.
- 54) Diana Crane (2000).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서미석 역 (2004).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울: 한길사, p. 326.
- 55) 서미석 역. *위의 책*, p. 325.
- 56) Amelia Malagamba-Ansótegui & Ramón Rivera-Servera. *op. cit.*
- 57) *Ibid.*
- 58) 자료검색일 2009. 11. 15. 자료출처 http://www.framerite.com.au/Portals/framerite/Gallery/Album/1/FoliesBergereJosephineBaker_PaulColin.jpg
- 59) Juan Ramos. *op. cit.*, p. 31.
- 60) 김세영 (2002). *신체를 통한 자아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